

중학생의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

장경애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Kyeong-Ae Jang

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Busan, 46958, Kore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The subjects were 602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living in Gyeongnam.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The first time experiencing smoking occupies 40.3% at a first 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and 23.3% at a sixth year of elementary school. The main motives are suggestion by their friends and seniors, 29.0% and then stress reduction, 5.6%. The most of students smoke 1 or 2 cigarettes a day, which is corresponding to 60.8%, and the main places for smoking are vacant lot and playground with 56.9%. The reasons keeping smoking are stress reduction with 47.1% and habituation with 21.6%. The score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smoking students such as grade, smoking thought after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the necessity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e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of their problem, encouragement by the parents in case of their mistake are higher than those of non-smoking group. In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on smoking of boy students are the grade, smoking thought after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the necessity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the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of their problem and encouragement by the parents in case of their mistak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operation of the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is required focusing on these factors.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Smoking

† Correspondence to: Jang KA
Tel: +82-51-999-5427
Fax: +82-51-999-5707
E-mail: jka@silla.ac.kr

Received December 30, 2015
Revised January 4, 2016
Accepted January 15, 2016

I. 서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체격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주위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1,2].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특별한 심

리적 장애 없이 정상적인 발달을 수행하지만, 신체적 심리적 인 변화에 있어 적응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내적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일탈행위에 노출되기 쉽다[3]. 그 중 흡연은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 일탈행위로 음주와 약물 남용 등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4], 흡연은 음주 및 약물남용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즉, 청

소년들이 흡연 후 친구와 싸움, 가족과의 마찰,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의 부정적인 경험률이 높아지면서,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흡연이 암묵적으로 비행청소년들과의 결속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6][7].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5년 11.8%에서 2007년 13.3%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2.1%에서 2014년 9.2%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1학년의 흡연율은 2014년 2.2%,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율은 2014년 24.5%로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피해와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고[9], 세포 조직 장기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며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높여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 담배에는 약 60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흡연에 의한 암 발생은 흡연 양과 비례한다고 보고되어 어렸을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 그리고, 흡연을 지속적으로 한 청소년에게 우울증상, 충동장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6][7].

흡연진행 단계를 보면 흡연자의 88%가 만 18세 이전에 습관적 흡연자로 발전하여 그 중 절반이 성인기 이전에 중독증상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 중 사망자율은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 중 사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11]. 폐암 사망률은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비흡연자의 18.7배에 달하여 청소년 시기의 흡연예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12]. 흡연의 관심은 질병과의 부정적인 관계와 분석뿐만 아니라 담배규제 정책과 사회환경과의 연관성 분석으로 관심을 보이고,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흡연과의 관련성, 교육학과 가정학에서는 흡연과 근접한 환경요인과 교우관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13].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요인은 내적인 요인인 심리적 특성과 외적인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질병, 성, 용돈수준, 음주경험, 사회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선행논문[14-16]을 바탕으로 흡연 유무에 따른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의 실태를 알아보고, 흡연 유무에 따른 관련성을 파악하여,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의 위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흡

연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건강과 구강건강을 증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경상남도 S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자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 하여 총 608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6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의 도구는 박과 고[14]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일반적 특성, 흡연실태, 학교생활, 금연교육, 가족생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2.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흡연관련 실태,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및 가정요인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현재 흡연 경험의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실태와 흡연관련 요인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흡연비율은 전체 602명 중 흡연을 하는 학생의 수가 51명으로 8.5%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학생 51명의 학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27.5%, 2학년이 37.3%, 3학년이 35.3%로 나타났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Section	Smoking	Non-smoking	Total
Grade	1st	14(27.5)	188(34.1)	202(33.6)
	2nd	19(37.3)	174(31.6)	193(32.1)
	3rd	18(35.3)	189(34.3)	207(34.4)
Total		51(100.0)	551(100.0)	602(100.0)

2. 흡연의 경험 유무와 시기 및 동기

흡연의 경험 유무와 시기 및 동기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에게 한번이라도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602명중 124명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24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23.4% 순이었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로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가 이 유라는 응답도 5.6%로 나타났다.

<Table 2> Smoking experience N(%)

Characteristics	Section	N	%
Smoking experience	No	478	79.4
	Yes	124	20.6
	Total	602	100.0
Smoking time	Elementary 3rd grade or less	9	7.3
	Elementary grade 4	8	6.5
	Elementary grade 5	11	8.9
	Elementary grade 6	29	23.4
	Middle school 1st	50	40.3
	Middle school 2nd	13	10.5
Smoking motivation	Middle school 3rd	4	3.2
	Invite friends and seniors	36	29.0
	Curiosity	75	60.5
	Relieve stress	7	5.6
	Communion friend	4	3.2
Look terrific	2	1.6	
Total		124	100.0

3. 흡연군 조사대상자의 흡연 실태

흡연군의 흡연 실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124명중 흡연 관련 문항에 모두 응답하여 현재 흡연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1명이었다. 현재 흡연 중인 학생 51명 중에서 ‘하루 흡연량은 1-2개피’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흡연 장소는 공터와 놀이터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지속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습관적으로 피운다는 응답이 21.6%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Smoking status of smokers surveyed N=51

Characteristics	Section	N	%
Amount smoking a day	1-2 cigarettes	31	60.8
	3-5 cigarettes	12	23.5
	5-10 cigarettes	4	7.8
	More than 10 cigarettes	4	7.8
	School toilets	1	2.0
Smoking area	Friends house	3	5.9
	Game room, karaoke	3	5.9
	Vacant lot, playgrounds	29	56.9
	Regardless of location	15	29.4
The reason smoking	Communion friend	3	5.9
	Relieve stress	24	47.1
	Habitually	11	21.6
	Diet	2	3.9
	Etc.	11	21.6
	Total	51	100.0

4. 흡연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흡연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제 상황이 발생시 의논할 교사가 있는가에 대해 흡연군과 비 흡연군 모두 의논할 교사가 있다는 응답이 72.5%와 75.3%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해 비 흡연군은 1시간 이내가 44.3%, 1-2시간에 35.6%로 나타나 2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흡연군은 1시간 이내에 27.5%, 1-2시간에 19.6%로 나타났고 다른 시간 항목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p<.001). 친구에게 흡연을 권유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흡연군은 있다는 응답이 27.5%, 비 흡연군 1.8%로 나타났고 ($p<.001$), 흡연을 친구로부터 권유받은 경험은 흡연군은 있다는 응답이 62.7%, 비 흡연군 19.6%로 나타났다($p<.01$). 친한

친구 수는 없다는 응답이 흡연군은 5.9%, 비 흡연군 0.5%로 나타났다($p<.01$).

<Table 4> School life according to experience of smoking

Characteristics	Section	Smokers	Non-smokers	N(%)	χ^2
Consultation with the teacher	Yes	37(72.5)	415(75.3)	452(75.1)	.19
	No	14(27.5)	136(24.7)	150(24.9)	
	Within one hour	14(27.5)	244(44.3)	258(42.9)	
Play time with friends after school	1-2 hours	10(19.6)	196(35.6)	206(34.2)	40.17***
	2-3 hours	11(21.6)	70(12.7)	81(13.5)	
	3-4 hours	7(13.7)	24(4.4)	31(5.1)	
	More than 4 hours	9(17.6)	17(3.1)	26(4.3)	
Smoking suggestion to friends	Yes	14(27.5)	10(1.8)	24(4.0)	80.15***
	No	37(72.5)	541(98.2)	578(96.0)	
Smoking suggestion from friends	Yes	32(62.7)	108(19.6)	140(23.3)	48.69***
	No	19(37.3)	443(80.4)	462(76.7)	
Number of best friends	No	3(5.9)	3(.5)	6(1.0)	13.97**
	1	0(.0)	5(.9)	5(.8)	
	2-3	2(3.9)	27(4.9)	29(4.8)	
	4-5	5(9.8)	54(9.8)	59(9.8)	
	More than 6	41(80.4)	462(83.8)	503(83.6)	
Total		51(100.0)	551(100.0)	602(100.0)	

** $p<.01$, *** $p<.001$

5. 흡연의 유무에 따른 흡연예방 관련 교육

흡연의 유무에 따른 흡연예방 관련 교육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난 1년간 흡연예방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흡연군 29.4%, 비 흡연군 14.7%로 나타났다($p<.05$). 효과적인 흡연예방법에 대해서는 흡연군과 비 흡연군 모두 흡연자/환자의 공포식 폐 영상 및 사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흡연군은 금연학교가 15.7%, 비 흡연군은 구강암 영상 및 사진이 17.6%로 나타났다($p<.05$). 흡연예방 교육 담당자의 경우, 흡연군은 간호사 31.4%, 보건교사 29.4%로 나타났고, 비 흡연군은 보건교사 27.4%, 간호사 26.9%로 나타났다.

6. 흡연의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

흡연의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부모님의 흡연 여부는 모두 비 흡연이라는 응답이 비 흡연군 46.6%, 흡연군 35.3%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 흡연 여부는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흡연군 21.6%, 비 흡연군 4.5%로 나타났으며($p<.001$), 친구의 흡연 여부는 대부분 피운다는 응답이 흡연군 39.2%, 비 흡연군 2.9%로 나타났다($p<.001$). 이성친구는 흡연군이 있다는 응답을 51.0%, 비 흡연군 21.2%로 나타났다($p<.001$). 문제상황 발생시 부모님의 조치는 흡연군과 비 흡연군 모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을 70.6%와 80.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5> Non smoking educat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smoking

Characteristics	Section	Smokers	Non-smokers	N(%)	χ^2
No smoking-related educational experience over the past year	No	15(29.4)	81(14.7)	96(15.9)	8.48*
	1	12(23.5)	124(22.5)	136(22.6)	
	2-3	18(35.3)	241(43.7)	259(43.0)	
	More than 4	6(11.8)	105(19.1)	111(18.4)	
Effective smoking cessation	Fear-type lung images and photos	24(47.1)	322(58.4)	346(57.5)	11.86*
	Oral cancer video, photos	6(11.8)	97(17.6)	103(17.1)	
	Non Smoking case	8(15.7)	43(7.8)	51(8.5)	
	Non Smoking aids	5(9.8)	56(10.2)	61(10.1)	
Who do you think should teach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Non Smoking schools	8(15.7)	33(6.0)	41(6.8)	3.95
	Dental Hygienist	1(2.0)	55(10.0)	56(9.3)	
	Health Teacher	15(29.4)	151(27.4)	166(27.6)	
	Student Life teacher	6(11.8)	74(13.4)	80(13.3)	
	Nurse	16(31.4)	148(26.9)	164(27.2)	
	Counselors	13(25.5)	123(22.3)	136(22.6)	
Total		51(100.0)	551(100.0)	602(100.0)	

*p<.05

<Table 6> Family life according to experience of smoking

Characteristics	Section	Smokers	Non-smokers	N(%)	χ^2
Parental smoking	Both	2(3.9)	18(3.3)	20(3.3)	3.50
	Father	31(60.8)	268(48.6)	299(49.7)	
	Mother	0(.0)	8(1.5)	8(1.3)	
	None	18(35.3)	257(46.6)	275(45.7)	
Brothers and sisters smoking	None brothers	0(.0)	46(8.3)	46(7.6)	27.31***
	Yes	11(21.6)	25(4.5)	36(6.0)	
	None	40(78.4)	480(87.1)	520(86.4)	
Friends smoking	Most	20(39.2)	16(2.9)	36(6.0)	128.44***
	Half	18(35.3)	98(17.8)	116(19.3)	
	Not the most	13(25.5)	437(79.3)	450(74.8)	
Girl friends	Yes	26(51.0)	117(21.2)	143(23.8)	22.81***
	No	25(49.0)	434(78.8)	459(76.2)	
How to solve when problems arise	Respected opinion	36(70.6)	444(80.6)	480(79.7)	3.17
	Not interested	5(9.8)	33(6.0)	38(6.3)	
	My parents decided	9(17.6)	63(11.4)	72(12.0)	
	Etc	1(2.0)	11(2.0)	12(2.0)	
Total		51(100.0)	551(100.0)	602(100.0)	

***p<.001

7. 흡연의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

흡연의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각 요인별 점수는 likert 5점척도로 분석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흡연군 3.39점, 비 흡연군 3.60점으로 나타났고, 성적수준은 비 흡연군 2.82점, 흡연군 2.00점($p<.001$), 교사관계는 흡연군 3.41점, 비 흡연군 3.65점으로 나타났다. 흡연예방 교육 후 흡연생각 정도는 흡연군 3.63점, 비 흡연군 4.25점으로 나타났으며($p<.001$),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필

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흡연군 3.39점, 비 흡연군 3.83점으로 나타났으며($p<.05$).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흡연군이 2.82점, 비 흡연군 3.13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흡연군 3.88점, 비 흡연군 4.27점으로 나타났으며($p<.05$), 문제 상황시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도 흡연군 2.45점, 비 흡연군 2.81점으로 나타났고($p<.01$), 실수시 부모님의 격려정도도 흡연군 3.12점, 비 흡연군 3.64점으로 나타났으며($p<.01$).

<Table 7> Related factors smoking according to experience of smoking

Characteristics	Smokers	Non-smokers	M±SD	t
School Satisfaction	3.39(.98)	3.60(.83)	3.58(.84)	1.43
Grade	2.00(1.06)	2.82(1.01)	2.75(1.04)	5.51***
Teacher relationship	3.41(1.04)	3.65(.95)	3.63(.96)	1.69
Smoking thought after non smoking education	3.63(1.20)	4.25(1.03)	4.20(1.06)	3.59***
Non-smoking education needs school	3.39(1.13)	3.83(1.17)	3.79(1.18)	2.54*
The necessity of non-smoking education in school	2.82(1.26)	3.13(1.30)	3.11(1.30)	1.64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3.88(1.16)	4.27(.84)	4.24(.88)	2.33*
The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of their problem	2.45(.88)	2.81(.78)	2.78(.79)	3.08**
Encouragement by the parents in case of their mistake	3.12(1.35)	3.64(1.11)	3.60(1.14)	2.70**

The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of their problem:1-4, All other variables:1-5.

* $p<.05$, ** $p<.01$, *** $p<.001$

IV. 고찰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흡연 경험 여부와 시기 및 동기, 흡연군의 흡연실태, 흡연의 경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 흡연예방 관련 교육, 가족생활, 흡연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다.

흡연비율은 전체 602명 중 흡연학생의 수가 51명으로 8.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17]에서 나타난 남자 중학생의 9.8%와 비슷한 비율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4명이었고, 이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흡연의 원인 규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과 후 친구와 노는 시간에 대해 흡연군은 비 흡연군보다 방과 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친구에게 흡연을 권유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흡연군이 비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흡연을 친구로부터 권유받은 경험은 흡연군이 비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1$). 친한 친구 수는 흡연군이 비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1$). 흡연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8].

지난 1년간 흡연예방관련 교육 경험에서 흡연군은 없다는 응답이 비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흡연예방법 중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에는 흡연군과 비 흡연군 모두 흡연자 및 환자의 공포식 폐 영상 및 사진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군에 비해 비 흡연군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예방 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응답은 흡연군에서 간호사, 보건교사순으로 응답하였고, 비 흡연군은 보건교사, 간호사 순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황 등[19]의 연구에서 효과적인 금연정책 주관 기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금연교육은 보건소,

치과 순으로 조사되어 치과질환과 흡연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정과 신[20]의 연구에서 구강보건의 지식수준 및 태도는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구강보건의 지식과 태도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하였다. 즉 구강보건교육시 영상과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과 흡연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흡연의 경험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은 부모님의 흡연 여부에서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흡연군보다 비 흡연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 자매 흡연 여부는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을 비 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 높게 나타났고($p<.001$), 친구의 흡연 여부는 대부분 피운다는 응답을 비 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 높게 나타냈다($p<.001$). 흡연군의 부모와 형제가 비 흡연군보다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의 흡연율도 흡연군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과 정[21]의 연구에서 가정관련 요인에서는 함께 사는 부모가 주요예측변수로서 대상자의 흡연경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Simons-Morton[22]은 흡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친구를 사귄 때 흡연을 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흡연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흡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과 박[23]의 연구에서 흡연 동료의 여부와 청소년 흡연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부모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의 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은 점수화가 가능한 흡연 관련성에 있어 학교생활 만족도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수준은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교사관계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흡연교육 후 금연생각 정도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흡연군보다 비 흡연군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황 등[19]의 연구에서 효과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금연교육,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처방, 금연법 확대, 담뱃값 인상 순으로 나타나 금연의 방법으로 교육이 금연의 성공률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적용시 교육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치과위생사는 흡연예방 교육강사 자격을 이수하여 흡연예방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모자녀의 관계 정도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5$), 문제상황시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는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고($p<.01$), 실수시 부모님의 격려정도도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변과 조[2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모와의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전과 박[2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흡연시작은 부모와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즉, 흡연군에 비해 비 흡연군이 부모 자녀관계가 좋고 문제상황 발생시 부모님과 상의를 더 많이 하며, 실수시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격려를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의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흡연자 뿐만아니라 가족, 선생님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흡연예방 교육을 통해 흡연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홍보활동이 흡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관련 요인을 파악한 후 청소년, 가족,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1학년에 40.3%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초등 6학년에 29명 23.3%로 응답하였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로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도 5.6%로 나타났다.
2. 현재 흡연 중인 학생의 흡연 실태는 하루 흡연량은 1-2

개피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흡연 장소는 공터와 놀이터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지속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습관적으로 피운다는 응답이 21.6%순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의 흡연경험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으로 비 흡연군이 흡연군보다 성적수준($p<.001$), 흡연교육 후 금연생각($p<.001$),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받을 필요성($p<.05$), 부모자녀의 관계($p<.05$), 문제 상황시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p<.01$), 실수시 부모님의 격려정도($p<.01$)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남자 중학생의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 관련성은 성적수준, 흡연교육 후 금연생각 정도,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받을 필요성, 부모자녀의 관계, 문제 상황시 부모님과 상의하는 정도와 실수시 부모님의 격려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접근방법에 적용하고 나아가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청소년, 가족,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Park NH: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123-136, 2005.
2. Son SY: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isure and Wellness* 7(1):81-95, 2012.
3. Shin JB: Relationship of leisure activities to sociability in middle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8.
4. Kim HK, Kang HS, Ko YH, Moon SS, Park YS, Shin YS: Influence factors of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376-386, 2002.
5. Kim HS, Kim HS: The influence of alcohol drinking and substance abuse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3):472-485, 2002.
6. Ryu KH: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rogram to aid adolescents in giving up smokin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6:1-18, 2001.
7. Kim JH, Lee SK, Park YD: A survey of the smoking status and recognitions of denti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3(2):288-297, 2009.
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10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Available From: <http://cdc.go.kr/>, (Accessed February.19, 2015)
9. Yi YJ, Lee KJ, Kim YS: Influences of demographic,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factors on smoking cessation success in adolescent smok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4):303-311, 2011.
10. Jo EJ, Kim NY: The related factors of adolescent smoker's cancer preventive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5287-5295, 2015.
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Human Service: The health consequences of involuntary exposure to tobacco smok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1994.
12. Im YS, Lee JH, Kim SI, Ham JS: Adolescent smoking behavior: personality, motivation, craving, nicotine dependence. *Journal of Korean Youth Studies* 10(3):461-479, 2003.
13. Kang LJ, Kim H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8(4):121-142, 2005.
14. Park SA, Koh HJ: Influencing factors on smoking habits among college women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9(1):25-38, 2005.
15. Choe EY, Jeong SH: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on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the amount of smoking, co, urine nicotine level and self-efficacy for adolescent smoker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y* 14(2): 103-111, 2012.
16. Jung JS: A study on the impact of adolescent smoking characteristics on the attitude toward anti-smoking advertisem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96:278-317, 2013.

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heongwon: KCDC; 2012: 1-6.
18. Aloise-Young PA, Graham JW, Hansen WB: Peer influence on smoking initi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A comparison of group members and group outsiders. *Journal of Application Psychology* 79(2):281-287, 1994.
19. Hwang JM, Kim EG, Park YD, Han JH: A study on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olicy of smoker patients. *Journal of Dental Hygienic Science* 13(1):77-82, 2013.
20. Jung YH, Shin HM: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activities in kindergarden and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 Educare* 16(2):171-191, 2009.
21. Kim KH, Chung H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xperience of smoking in middle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Nursing* 11(1):14-22, 2005.
22. Simons-Morton BG: The protective effect of parental expectations against early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5):561-569, 2004.
23. June KJ, Park SH: Predictors affecting smoking initiation and an increase in smoking frequency among Korean middle schoolers. *Studies of Korean Youth* 18(1):5-27, 2007.
24. Byeon JO, Cho YT: School smoking rate as a social factor affecting the adolescent smoking in Kore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Korean Health Education Promotion* 27(4):7-16, 2010.